

통큰 단결,
변화와
혁신.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노동계급의 희망을 만드는 미래전략!

민주노총 제11기 임원선거 정책자료집



약력

2000년 금속산업연맹
해강헨스타 노동조합
설립 위원장, 금속노조 2·3기 지회장

2003~13년 금속노조 총남지부
3·4·6·7기 사무국장, 5기 조직부장

2015년~ 민주노총 세종총남본부
6기 부분부장, 7·8기 본부장(현)

금속노조 세원테크투쟁, 한미FTA투쟁,
경남제약투쟁, 유성기업투쟁,
갑을오토텍투쟁 과정에서

30여 차례 기소
2회 수배·구속
24일 단식투쟁

9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 -일반명부-

문용민

민주노총, 다시

가슴 뛰는 이름으로

★약속 1. 조합원의 자랑, 민주노총

민주노조 파괴 정책 분쇄,
산별교섭 제도쟁취, 현장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노동개악 분쇄, 노동권 전면 쟁취!
지역본부와 현장 지원 역량 강화
120만의 자랑, 산별/지역본부
일상적 현장 순회를 통한 상시 의견 청취

★약속 2. 2,500만 노동자의 비밀 언덕, 민주노총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근기법, 중처법 전면 적용
플랫폼, 비정규직, 교사, 공무원 노조할 권리 쟁취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통한 총고용 쟁취
200만 민주노총으로의 도약,
정밀 전략 조직화 지원 강화
노조 없는 노동자에게도 권리를!
사회연대운동 노동조합으로 전진!

★약속 3. 시대전환의 견인차, 민주노총

반민주, 반평화, 반여성, 반생태에 맞서는 민주노총!
정책역량 강화로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노총!
노동자/민중, 사회적 약자와 어깨 거는 민주노총!
불의한 권력, 보수 정치 타파의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는 민주노총!
야만과 불평등의 시대를 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치를 개척하는 민주노총!

2025년 민주노총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1995년 산별노조건설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걸고 41만 명으로 출범한 조직이 어느덧 120만 명이 넘는, 명실상부한 노동계급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합니다. 헌법이 못 박은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가 85%가 넘습니다. 민주노총 30년 120만 조직으로써 노동계급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민주노총의 나아갈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번 임기를 시작하는 집행부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야만과 불평등과 반동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2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겠습니다. 반민주, 반노동, 반평화, 반여성, 반생태에 맞서 가장 전투적 투쟁을 조직하겠습니다. 노동 중심 정치 세력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노총, 다시 가슴 뛰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전체 노동자 민중에게 자리매김할 절박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 모두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력적인 투쟁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종총남지역본부장으로서 해고와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문용민 후보! 작은 차이를 통큰단결로 모아냈던 그를 적임자로 추천합니다.

전)민주노총 직선 1기 위원장 **한상균**

